

# 윤병태 나주시장, 배 농가 냉해 현장 점검...“피해 조사, 지원 신속”

### 지난달 8~9일 영하권 이상저온 현상 피해 심각 12일까지 전체 피해농가 정밀 조사·복구계획 수립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4월 이상 저온으로 냉해를 입은 배 농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지난달 30일 금천면, 왕곡면 배 농가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농가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냉해 원인은 3월 이상 고온으로 과수 개화가 앞당겨진 상태에서 4월 8~9일 평년 대비 낮은 이상저온 현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2.3도(°C)까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특히 4월 4일 이후 인공 수분한 과원에서 저

온에 따른 작과 불량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지대, 하천 주변,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과원 등에서 피해가 더욱 광범위한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인공수분 후 정상적인 수정이 이뤄지려면 15~25도 상온에서 48~72시간이 경과 해야 한다.

한 농가는 “올해처럼 냉해가 극심한 때는 없었다. 이 상태로라면 올해 농사는 포기해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피해 현황 조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병태 시장은 “적과 시기를 앞두고 열매 없

는 배나무를 보니 냉해 피해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전체 과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파악하고 농식품부, 배원 협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지난 4월 21일부터 시작된 냉해 피해 농가 정밀 조사에 따른 피해 복구 계획을 오는 12일까지 확정하고 전라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1일에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금천면 배 농가 현장을 방문해 냉해 피해를 점검한 바 있다.

시는 ‘농자재비 등 경영비 상승에 따른 지원’, ‘재해 예방시설 보조금 지원율 상향 조정’,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원의 현실화’, ‘피해 예방시설 지원’ 등을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나주=송준표기자



## 화순군, 나도 농부! 쌀 지킴이 ‘가족반’ 교육생 모집

### 오늘부터 신청...농업기술센터 벼 재배 체험키트 배부

화순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나도 농부! 쌀 지킴이 ‘가족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5월 13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가정에서 벼 재배 체험을 할 수 있는 화분을 배부하여 동영상 등을 통한 벼 재배 체험키트 활용법 교육을 진행한다. 벼의 파종에서부터 전 생육기

간을 거르고 관찰하면서 쌀의 소중함과 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화순에 거주하는 가족(신혼부부, 시니어부부, 자녀가 있는 부부 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은 5월 4일부터 전화접수 혹은 방문접수로 이루어지며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서류를 확인 후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곡성군,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 처리지원 사업 추진

### 병해충 방제 시간 95% 절감...쌀 생산량 8% 증가

곡성군이 2일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 처리지원 사업’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관과 오산면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사업에 선정된 농가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모판 관주처리 기술 전문가의 모판관주 권장 약량 및 살포법 교육 후 사업추진 시 주의사항 안내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 처리지원 사업은 벼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곡성군에서는 올해 83ha의 면적에 벼 모판관주 처리 약제비로 4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

이다.

육묘상 관주 처리 기술은 벼 이앙 2~3일 전에 살균제, 살충제, 영양제를 몰과 희석해 모판 1개당 300ml를 수압이 세지 않은 분무기나 물뿌리개를 사용해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좁은 면적에서 방제할 수 있으며, 약효가 3~5개월 동안 지속돼 농약을 주기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모판 관주 처리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와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 이병노 담양군수, 대나무축제장 현장 안전 점검 나서

### 축제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 위해 간부공무원과 함께 현장 살펴



담양군이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대나무축제, ‘2023 New Bamboo Festival’을 앞두고 관람객의 안전 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축제장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병노 담양군수 외 간부 40여 명은 2일 오전 6시 30분에 축제장에 집결해 행사장 동선을 걸어보며 현장 곳곳을 꼼꼼히 점검

했다.

군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이번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4월 3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26일에는 부군수 주재 유관기관 안전대책 및 교통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기관별 역할과 준비 상황을 재점검했다.

이날 이 군수는 직원들과 축제장을 직접 걸으며 주변 환경 정비 및 위험 요소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관람객 입장에서 주 이동로인 추성경기장 주변 동선과 교통 노선, 안전 취약지역 등을 구석구석 살펴 미비점을 논의하고 보완했다.

이병노 군수는 “4년 만에 열리는 축제이자 담빛음악당을 주무대로 처음 개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과 함께 생태도시 담양다움을 강조한 깨끗한 친환경 축제로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구례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공연 개최

### 5월 6일부터 10월까지 총 7회

구례군은 ‘구례군 문화의 날’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공연이 서시천체육공원, 5일시장, 화엄사 시설지구, 천은사 등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5월 6일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대중가요, 악기연주, 마술, 무용,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팀들의 공연이 각 팀당 30분가량 펼쳐진다.

첫 공연은 5월 6일 오후 2시 서시천체육공원 서시정 앞에서 시작한다. 관객들과 함께하는 어쿠스틱, 클래식, 국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 군민들과 구례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버스킹 공연을 함께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자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이어지는 버스킹 공연 일정은 구례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